

#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백 승 호

(서울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제도적 상보성, 생산조정, 분배조정, 소득 불평등

## 1. 서론

본 연구는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체제(welfare regimes)와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s)의 조정(coordination)<sup>1)</sup> 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1) 조정은 사회적 관행 즉, 제도구성에서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되는 개념이다(Goodwin, 2001: 81). 과정으로서의 조정 개념은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이 생산양식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Goodwin, 2001), 복지체제의 조정전략과 생산체제의 조정전략을 통한 제도구성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함을 설명할 때 유용한 개념이다. 특정 정치경제체제의 조정전략은 경제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전략적 조정과, 문제의 근원을 개인에게서 찾고, 시장에서의 상품

complementarity)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복지체제론에 기반한 연구들과 자본주의 다양성론(varieties of capitalism)에 기반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체제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경제의 주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 등 분배영역에서의 조정을 강조한다. 주요 독립변수는 노동 권력의 조직화(권력자원론)와 노동 권력의 장기적 영향력을 보장해주는 정치체제의 구성(제도, 국가 중심론) 등이 분석된다(안재홍, 2004: 395-396). 즉,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노동운동의 역량, 정당의 역할 등 노동계급이 가지고 있는 권력자원(power resource)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소득불평등 수준도 상이하다고 주장한다(대표적인 예, Stephens, 1979; Korpi, 1978, 1983, 1989; Esping-Andersen, 1990; Korpi and Palme, 2003 등). 그래서 주된 연구대상은 사회보험(Korpi and Palme, 1998), 조합주의(Hicks, 1994), 정당정치(Korpi 1989; Esping-Andersen 1990; Hicks and Swank, 1992) 노조 조직률(Stephens, 1979; Rudea and Pontusson, 2000; Mahler, 2004) 등이며, 이러한 제도변수가 독립적으로 소득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정치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 경제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sup>2)</sup> 따라서 시장 및 시장과 관련된 제도들을 통한 생산의 조직(Soskice, 1999: 101) 즉, 생산체제 개념을 사용하여 기업, 노동자, 자금공급자 등 미시적 행위자들이 상호관계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방식을 분석한다(Soskice, 1999: 101; Hall and Soskice, 2001: 5-7). 즉, 생산영역에서의 조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경향들은 경제의 공급측면인 생산에 이론적 초점을 맞추고 생산조정에 따른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발전과 정치경제적 성과를 분석한다(안재홍, 2004: 396).<sup>3)</sup>

복지체제론과 초기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사회정책 영역과 경제정책 영역을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정치경제적 성과를 분석한다. 그 이유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영역이 각각 생산과 소비라는 자율적이면서 상호 모순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제제도가 사회제도와 분리되어 존재한 적은 없으며(박현수 역, 1991), 사회정책 역시 자본축적을 보장 하는 수단으로서 시장 실패를 보조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Jessop, 2002: 141). 즉, 복지체제와 생산체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성과는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화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시장(market-oriented) 조정 차원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 2)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실패, 스웨덴 모델의 쇠퇴,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은 1980년대 이후 한편에서는 자기 조절적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을 확산시켰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시장이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조정 기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시장이외의 대안적인 조정 기체와 조정 경로를 분석하려는 이론적 논의들이 축적되어 왔다(Hollingsworth and Boyer, 1997: 1-2). 대표적인 이론적 논의는 사회적 생산체제론(social system of production)과 자본주의 다양성론(varieties of welfare capitalism)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조정기체, 조정 경로와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분석하기보다는 조정 영역에서의 제도적 상보성과 정치경제적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다.
- 3)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기반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정치경제적 성과, 즉 경제성장률, 노동 공급 등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분배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성과, 즉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복지체제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도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에스핑앤더슨(1990, 1999)은 복지체제와 노동시장과의 관계에만 국한하여 생산체제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보였을 뿐, 생산체제의 제도영역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했다. 또한, 초기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생산체제의 하위 영역들 사이의 제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정치경제적 성과가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기의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생산 영역에서 제도들의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상보성 논리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두 영역의 제도 구성 과정에 적용되며, 이것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도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영역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과 정치경제적 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안상훈, 2005; Ebbinghaus and Manow, 2001; Huber and Stephens, 2001a; Hall and Soskice, 2001; Manow, 2001; Mares, 2001 등).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복지체제와 생산체제가 서로 조화되어 있고(fitted),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머무르고 있거나(안상훈, 2005; Ebbinghaus and Manow, 2001; Hall and Soskice, 2001: 50-51; Huber and Stephens, 2001a: 85-112), 조정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관계를 질적 사례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안재홍, 2004; Manow, 2001; Mares, 2001).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영역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제도적 상보성 이론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자율적 시장 기제를 통한 생산체제 영역에서의 조정만이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분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오류가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체제의 조정 과정이 시장에 반하는 정치적 역동(politics against market)이기 때문에 생산적 기능과는 무관하게 분배 구조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들 역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오히려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영역의 제도구성은 독립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 상보성의 수준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 2. 제도적 상보성의 개념 및 기존 연구 검토

### 1) 제도적 상보성의 개념

먼저 본 연구에서는 아마블(Amable, 2002:5-6)의 제도적 상보성 정의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제도적 상보성을 규정한다.

첫째, 제도적 상보성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제도구성 논리가 다른 영역에서의 제도구성 논리를 강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 영역의 제도가 다른 영역의 제도 구성 논리에 동화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즉, 복지체제 또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한 제도가 시장조정이 지배적이라도 구성될 경우, 다른 제도 또한 시장조정을 지향하도록 구성되는 경향을 갖는다. 반대로 한 제도가 신뢰와 협의에 기반하는 전략적 조정을 선호하면 다른 제도 또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영역 사이에서의 제도구성에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된다. 즉, 복지체제 영역의 제도들이 시장조정(전략적 조정)이 지배적이라도 구성된다면, 생산체제 영역의 제도들도 시장조정(전략적 조정)이 지배적이라도 구성될 것이다. 그런데 시장조정과 전략적 조정의 정도는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제도적 상보성 수준도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시장조정 또는 전략적 조정 수준이 높도록 제도가 구성될수록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유사한 구성만으로는 제도적 상보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도적 상보성의 두 번째 속성이 중요하다. 두 번째 속성은 제도적 상보성의 수준과 정치경제적 성과와 관련되어 규정된다. 즉, 한 제도영역의 조정전략의 변화가 다른 제도영역의 변화와 같이 진행될 경우에 소득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면, 두 제도 영역은 상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적 상보성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제도적 상보성은 미시적 차원<sup>4)</sup>과 거시적 차원의 효율성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상보성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 거시적 차원의 효율성은 미시적 차원의 효율성이 달성되도록 제도들이 구성될 때, 소득불평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복지체제 영역에서 사회적 보호수준이 높은 조정전략을 지향할 때, 생산체제 영역에서 노동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조정전략으로의 변화가 결합되는 경우, 소득불평등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보호수준이 높다는 것은 노동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들은 이러한 높은 노동비용을 더 높은 생산성으로 상쇄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숙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 2001). 이러한 조정과정은 높은 사회적 보호,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안정적 임금 보장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sup>5)</sup>

- 4)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수록 미시적 차원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미시적 차원의 효율성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최선의 방식으로 제도적 틀이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적 상보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복지체제 또는 생산체제의 조정전략이 각 제도구성에 순수하게 반영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다면 즉, 한 영역의 제도가 다른 영역의 제도구성 논리에 동화되는 정도가 높다면, 이러한 제도구성은 불필요한 갈등과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미시적 차원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 5) 그렇다면 왜 서로 다른 영역의 제도들이 미시적 또는 거시적 효율성이 달성되도록 구성되는가? 그 이유는 다른 영역(B)에서의 제도구성에 따른 제도적 제약이 특정 영역(A)에서 제도구성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행동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특정 영역(A)에서의 행위자들은 다른 영역(B)에서의 제도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제도구성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도적 상보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제도적 상보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 2) 제도적 상보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

제도적 상보성과 정치경제적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한 영역의 특정 제도들이 다른 영역의 특정제도들과 상보적 관계를 가지고 구성된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고, 후자는 이러한 특정 제도 영역들 사이의 상보성이 거시 정치경제적 성과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본주의 다양성론<sup>6)</sup>에 기초해서 이 두 가지 차원 중 미시적 차원에 집중되어 왔다.

먼저, 개별제도의 구성과 같은 미시적 차원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경향들은 생산 조정 영역의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하거나, 생산 조정과 분배 조정 영역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하고 있다 (Amable, Ernst and Palombalini, 2001; Estevez-Abe et al., 2001; Ebbinghaus, 2001; Mares, 2001; Aoki, 2003). 전자는 금융시장 전략과 노사관계(Amable et al., 2001), 기업조직의 구성과 기업지배구조(Aoki, 2003)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 집중하여 이들 영역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을 강조할 뿐, 생산체제 및 복지체제 하위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Hall and Soskice, 2001: 4). 반면에 분배 조정과 생산 조정 영역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하는 연구들로는 사회적 보호와 숙련 투자(Estevez-Abe et al., 2001), 기업과 실업보험 시스템(Mares, 2001), 복지체제, 생산체제, 노사관계와 조기퇴직 정책(Ebbinghaus, 2001),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정책(안재홍, 2004)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제도적 상보성을 특정 제도의 한계효율 또는 특정 제도 형태들의 조화라는 미시적 관점에 집중하고 있으며, 질적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상보성 개념의 두 번째 속성인 전체 자본주의 시스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즉 소득 불평등과 같은 거시 정치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거시 정치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예, 안상훈, 2005; Huber and Stephens, 2001a, 2001b; Franzese, 2001; Ernst, 2002; Hall and Gingerich, 2004).

이들 연구들은 금융정책과 노사관계(임금협상)의 제도적 상보성이 실업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Franzese, 2001), 산업의 속성과 노동시장, 금융시장 제도 구성의 상호작용이 부가가치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Ernst, 2002), 노사관계와 기업지배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Hall and Gingerich, 2004)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생산체제 영역의 제도구성에서 제도적 상보성과 거시 정치경제적 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지만, 복지체제 영역과 생산체제 영역 사이의

6)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직업훈련 및 교육, 기업간 관계 등에서 자본과 관련 행위자들과의 전략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조정(coordination)이 선택되느냐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조정 방식에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를 조정된 시장경제(CME)와 조정되지 않은 자유 시장경제(LME)로 구분한다(Hall and Soskice, 2001: 6-9).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하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에, 후버와 스테프스(Huber and Stephens, 2001a)는 생산체제를 기업, 피고용인, 금융기관 등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체제를 보다 폭넓게 해석한다. 즉, 생산체제 지표로서 노조의 포괄범위, 조합주의 지수, 단체협상의 중앙 집중도, 식자율(literacy rate, 識字率),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검토한다. 또한, 복지체제 지표로서 사회보장지출, 공공부문 고용, 탈상품화 지수 등을 검토하고,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관계를 소득불평등, 빈곤 등 복지국가의 성과와 관련하여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각 지표들에 대한 기술 통계 수치들을 제시하면서 체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술적 수준에서만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한 단계 진전된 연구로서 안상훈(2005)은 후버와 스테프스(2001a)의 분석을 좀더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먼저, 조정지수, 중앙화된 협상, 중앙은행 독립정도 등 후버와 스테프스(2001a)가 사용한 생산체제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생산-복지체제의 유형구분이 에스핑앤더슨(1990)의 복지체제 구분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생산-복지 체제들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집단간 변량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 두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거시 정치경제적 성과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두 영역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과 정치경제적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보다는, 세 가지 자본주의 복지체제를 유형화하고 있는 에스핑앤더슨(1990)의 논의에 의존하여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생산체제에서 시장 조정과,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생산체제에서 전략적 조정과 조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복지-생산 체제의 조합에 따라서 정치경제적 성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상보성 관점에서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후기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기본적 입장을 수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생산조정 및 분배조정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한다.

### 3)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앞서 살펴본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그리고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 이외에 기타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아동 및 노인 부양비, 인플레이션 변수가 검토될 것이다.<sup>7)</sup>

먼저 아동 및 노인 부양비는 소득 불평등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환준, 2005). 15세 이하의

7)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정치적 요인으로서 노조 조직률, 좌파정당정치, 조합주의 등의 변수(Stephens, 1979; Korpi, 1983, 1989, Swank, 2001)와 경제적 요인으로서 실업률, 세계화, 탈산업화 등의 변수들(Blanchflower and Oswald 1994; Eardley, et al., 1996; Mishra, 2002),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서 노인과 아동 부양비 등이 언급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부양비 변수만을 고려할 것이다. 그 이유는 노조 조직률, 경제개방도, 제조업 고용률, 실업률 등의 변수가 분배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Blanchflower and Oswald, 1994; Compston, 2004: 7-16) 다중 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구비율(Simpson, 1990), 노인인구비율(Deaton, 1997)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 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Nielson and Alderson, 1995), 그 이유는 인구의 증가로 청년노동력이 증가하면 저숙련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낮춤으로써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Williamson, 1991: 25-27). 그런데 인구증가율 변수는 15세 이하의 인구비율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따라서 15세 이하의 인구비율이 높다면 소득 불평등 수준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노동력의 소득분포보다 노인의 소득분포 차이가 크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Deaton, 1997). 그리고 아동 및 노인들은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집단들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 이들 인구집단의 크기가 커진다면 소득불평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은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될 경우 인플레이션은 고소득층 개인이나 가구에 의한 납세액의 증가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Gustafsson and Johansson, 1999). 반면에 일부 연구들은 인플레이션이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Volscho, 2004).

###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는 OECD 회원국들 중 14개 회원국으로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 포함된다. 전체 OECD 회원국이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일부 변수들의 자료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 기간은 1980-1997년이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서구 복지국가 재편의 단계와 관련된다(Jessop, 2002: 154). 첫 번째 시기인 1970년대는 복지국가 황금기 시기의 제도적 관성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시기로서, 여전히 복지국가 황금기 시기의 분배 및 생산조정 전략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시기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며, 두 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2) 분석 자료 및 변수

### (1) 종속변수

비교 사회정책 연구에서 가구 소득 불평등 변수는 분배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가구 소득 불평등 자료는 주로 세계은행에 의해 축적된 자료가 사용되어 왔다(참고 Deininger and Squire, 1996). 그러나 이 자료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Galbraith and Kum, 2004: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텍사스 대학 불평등 프로젝트(UTIP)의 가구 소득 불평등 자료(Estimat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HII)를 사용하였다. EHII 자료는 UTIP의 불평등 지수와 세계은행의 불평등 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여 추정된 가구소득 불평등 자료이다(Galbraith and Kum, 2004). 본 연구는 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표로서 이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sup>8)</sup>

###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주요 독립변수는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이다. 이들 변수는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영역의 주요 제도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되었다.<sup>9)</sup> 복지체제 영역에서는 사회보험, 가족지원 정책, 노동시장 정책 영역이 포함되며, 생산체제 영역에서는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직업교육 및 훈련, 기업간관계 영역이 포함된다.

복지체제의 핵심 제도 영역으로서 에스핑앤더슨(1990)은 사회보험체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다른 제도 영역들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세 가지 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변종 복지체제들의 존재에 대한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해 왔고(Esping-Andersen, 1999: 86), 복지체제의 조정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히 포괄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임성근 역, 2004: 3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스핑앤더슨(1999), 히크스와 켄워드(Hicks and Kenworthy, 2002) 등의 제안에 따라 사회보험<sup>10)</sup>, 노동시장 정책, 가족지원 정책 영역이 검토된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제도 변수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생산체제의 핵심 제도 영역으로서 소스키스(Soskice, 1999), 홀과 소스키스(Hall and Soskice, 2001)의 제안에 따라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직업훈련 및 교육<sup>11)</sup>, 기업간관계 영역을 분석

8) 소득자료에 대한 국제비교에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가 많이 이용되지만, 이 자료는 이용할 수 있는 년도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9) 자세한 내용은 백승호(2005)를 참고하라.

10)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제도로 실업보험과 상병보험의 제도구성이 검토된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복지체제의 조정전략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재편기 복지체제의 조정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소득보장 정책 영역 중에서 상병, 실업 보험은 단기 정부 재정 균형과 관련해서 핵심적 관심 영역이다(Korpi and Palme, 2003: 433). 따라서 연금보험은 제외된다.



하였다. 자본주의 다양성론 연구들에서 이 네 영역은 생산측면의 핵심적인 제도적 틀로서 기업, 노동자 등 미시행위자들이 상호관계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검토되는 중요한 영역들이다(Soskice, 1999: 101).

제도 변수들의 구체적인 정의 및 출처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 및 출처

변수명	변수정의	출처	
소득불평등(Gini)	추정 가구 소득 불평등(Estimat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HHI)	UTIP(2004)	
복지 체제 영역	<b>사회보험</b>		
	- 실업보험 - 상병보험	실업보험과 상병보험의 최소 보험가입기간, 대기기간, 처음 26주간 급여의 순소득 대체율, 급여지급기간, 보험포괄비율	Scruggs(2004)
	<b>가족지원정책</b>		
	- 가족지원정책지출 - 보육지원정책 - 출산/육아휴직	GDP 대비 가족지원정책 지출 취학전 교육담당시설의 등록률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기간 및 소득 대체율	OECD(2004) Gauthier(2003) Gauthier and Bortnik(2001)
	<b>노동시장 정책</b>		
	- ALMP 지출 - 고용보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표준화실업률 고용보호의 수준	OECD(2004) OECD(1999)
	<b>노사관계</b>		
	임금형성조정 수준	임금 형성 중앙화 수준	OECD(1997)
	임금형성조정 정도	임금협상 관련 행위자들의 조화정도	Kenworthy(2001)
	<b>기업지배구조</b>		
주식시장의 크기	GDP 대비 거래된 주식 시가 총액	Beck, Demirgüç-Kunt and Levine(1999)	
주주의 권리	평주주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영향력	La Porta 등(1998)	
생산 체제 영역	<b>직업교육 및 훈련</b>		
	장기고용보장	기업 특수적 숙련 투자 가능성 대리변수	Hicks and Kenwrothy(1998)
	식자율	기초적 활자정보, 고급 문서정보, 수리 활용 및 이해능력	OECD/HRDC(2000)
	<b>기업간 관계</b>		
	협력기업간 관계	협력 기업과 파트너십 활용 정도	Hicks and Kenwrothy(1998)
경쟁기업간 관계	경쟁 기업과 동맹 활용 정도	Hicks and Kenwrothy(1998)	

11) 일반적으로 직업훈련과 교육을 측정할 때,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은 직무관련 훈련 참여율 변수(OECD, 1999: 142) 또는 대리변수로서 근속년수(job tenure), 이직률(job turnover rate) 변수가 사용되는데(OECD, 1999: 137). 이 변수들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4개 국가를 모두 포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속년수의 대리변수로 장기고용보장을 시계열 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한 Hicks와 켄워드(1998)의 변수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측정된 각 변수들의 점수를 표준화해서 제도영역별로 평균값을 구하였고, 이들 각 영역의 점수를 대상으로 공통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서 각각 하나의 공통요인을 산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공통요인분석 결과  
- 복지체제 영역의 분석결과

공통요인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 설명변량
1	1.73	1.18	1.18
2	-0.09	-0.06	1.12
3	-0.17	-0.12	0

요인적재값		
변수	공통요인1(분배조정)	고유요인(uniqueness)
사회보험	0.69	0.53
가족지원정책	0.77	0.41
노동시장정책	0.82	0.33

- 생산체제 영역의 분석결과

공통요인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 설명변량
1	1.90	1.05	1.05
2	.26	.14	1.19
3	-.16	-.09	1.10
4	-.19	-.11	1

요인적재값		
변수	공통요인1(생산조정)	고유요인(uniqueness)
노사관계	.84	.30
기업지배구조	.54	.70
교육훈련	.79	.38
기업간관계	.53	.71

마지막으로 산출된 공통요인을 점수화해서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척도를 구성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복지체제의 세 가지 제도 영역은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영역이며, 사회적 위험의 관리, 노동시장의 작동과 관련되는 제도 구성을 통해서 분배문제의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 제도 영역에는 분배와 관련된 조정전략의 공통된 제도구성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공통된 제도구성 논리를 ‘분배조정’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세 제도 영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생산체제의 네 가지 제도 영역은 기업, 노조, 정부, 투자자 등 미시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관련되는 핵심 영역이며, 생산측면에서 주요한 제도적 틀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 영역에는 생산과 관련된 조정전략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공통된 제도구성 논리를 ‘생산조정’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네 제도 영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정의 및 출처는 <표 3>과 같다.

<표 3> 기타 통제변수들의 정의 및 출처

변수명	변수정의	출처
아동·노인 부양비	15-64세 인구대비 15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	Huber 등(2004)
인플레이션	전년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율	Huber 등(2004)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으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이 사용된다. 결합시계열 회귀분석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안상훈, 2002; Hicks, 1994: 170-171; Plümper, Manow, and Troeger, 2005: 329).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자료의 특성상 일반적인 선형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합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형성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sup>12)</sup> 본 연구에서는 백과 카츠(1995)의 제안에 따라 패널 속성을 고려한 표준오차(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PCSE)를 사용하는 모델을 추정하였다. 결합시계열 자료에서 OLS의 문제점과 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백과 카츠가 제안하는 해결방안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결합시계열 자료에서 OLS의 문제점과 대안

OLS의 문제점	백과 카츠의 제안
패널 간 이분산성 패널 간 동시상관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PCSE) 모델 사용
자기상관	시차 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 투입
고려되지 못한 변수 문제	고정효과 모델(Fixed Effects Model: FEM) 사용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백과 카츠의 제안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고정효과가 확인될 경우에 본 연구는 시간에 따른 변화보다는 국가간 편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 더미만을 포함할 것이다(Beck, 2001: 285; Federico, 2000: 26). 그리고 자기회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버와 스테픈스(2001a)의 제안에 따라 5년 시차 종속변수를 모델의 오른쪽 항에 추가할 것이다.

12) 대표적인 방법이 파크스(Parks, 1967)의 일반화 최소제곱(Generalized Least Square: GLS) 방법과 백과 카츠(1995)의 패널 속성을 고려한 표준오차(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PCSE) 방법이다. 그러나 백과 카츠(1995)는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실험을 통해 파크스의 GLS 방법이 표준 오차는 50-300% 정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p.634), 패널 이분산성과 동시상관을 고려한 표준오차를 계산한 일반적 최소제곱(Ordinary Least Square: OLS)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LnG = \beta_1 Soc.C_{it} + \beta_2 Econ.C_{it} + \beta_3 Soc.C_{it} * Econ.C_{it} + \sum_{j=1}^j \beta_j Z_{jit} + \nu_i + \epsilon_{i,t}$$

(LnG:로그지니, Soc.C:분배조정, Econ.C:생산조정, Z:통계변수들,  $\nu$ :고정효과,  $\epsilon$ :잔차, i:국가, t:시간)

## 4.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먼저 <표 5>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n=252)

변수	1980-1989		1990-1997		전체기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니계수(%)	34.60	4.83	36.21	4.31	35.32	4.66
로그지니계수	3.53	.13	3.58	.11	3.56	.12
분배조정(점)	0.00	.90	0	.95	0.00	.92
생산조정(점)	0.00	.95	0	.90	0.00	.92
인플레이션(%)	6.69	4.24	2.78	1.79	4.95	3.90
노인·아동부양비(%)	.52	.06	.51	.04	.51	.05

종속변수인 지니계수(Gini)의 1980년대 평균은 34.6, 표준편차는 4.83이고, 1990년대 평균은 36.21, 표준편차는 4.31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니계수를 자연로그 지수 값으로 전환<sup>13)</sup>할 때 전체기간의 평균은 3.56이었고 표준편차는 0.12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소득불평등 정도가 약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은 평균이 0이었고, 표준 편차는 0.9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표 6>은 종속변수인 지니계수 값의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스웨덴으로서 29.474이고,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서 47.105를 보이고 있다.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을 소득불평등 정도와 비교해 볼 때,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대륙 유럽 국가 등 분배조정 및 생산조정 점수가 높은 나라가 소득 불평등 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인 국가들은 분배조정 점수와 생산조정 점수가 낮고 소득 불평등 정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이할 만한 국가로는 스위스를 지적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분배조정 및 생산조정 점수의 부호가 동일한 반면 스위스는 분배조정

13) 지니계수는 편포(skewness) 값이 1.34로 정적 편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변수는 자연로그 변환을 통해 정규분포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투입되었다.

점수는 음수이고 생산조정점수는 양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스위스는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사이에 상보적인 제도구성 수준이 낮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위스는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분석되고 있다.

<표 6> 국가별 변수의 일반적 특성(n=252)

구분		지니 계수	로그 지니계수	조정	분배조정	생산조정	인플레이션	노인아동 부양비
스웨덴	평균	29.474	3.380	1.351	1.525	0.780	6.228	0.558
	표준편차	2.585	0.082	0.423	0.607	0.324	3.872	0.008
노르웨이	평균	33.223	3.503	1.080	0.859	0.969	5.737	0.555
	표준편차	1.197	0.036	0.149	0.192	0.163	3.700	0.013
독일	평균	32.433	3.479	0.955	0.681	1.142	2.819	0.453
	표준편차	0.638	0.019	0.110	0.168	0.067	1.823	0.023
핀란드	평균	31.977	3.464	0.898	0.461	0.815	5.110	0.482
	표준편차	1.391	0.043	0.197	0.447	0.150	3.588	0.011
덴마크	평균	30.523	3.418	0.810	0.613	0.619	4.771	0.499
	표준편차	0.503	0.016	0.042	0.094	0.163	3.442	0.019
네덜란드	평균	34.195	3.531	0.647	0.614	0.417	2.719	0.466
	표준편차	1.236	0.036	0.070	0.183	0.079	2.006	0.018
벨기에	평균	37.031	3.612	0.531	0.760	0.528	3.799	0.501
	표준편차	0.594	0.016	0.045	0.112	0.108	2.509	0.014
스위스	평균	47.105	3.847	-0.137	-0.366	0.300	3.072	0.474
	표준편차	4.558	0.106	0.064	0.181	0.075	1.924	0.013
아일랜드	평균	38.734	3.656	-0.722	-0.729	-0.347	6.248	0.628
	표준편차	1.593	0.041	0.064	0.086	0.535	6.161	0.055
호주	평균	35.127	3.557	-0.753	-0.830	-0.415	5.935	0.508
	표준편차	2.481	0.070	0.051	0.265	0.252	3.545	0.013
뉴질랜드	평균	36.522	3.592	-0.867	-0.514	-0.969	7.757	0.536
	표준편차	4.136	0.110	0.095	0.121	0.194	6.027	0.016
캐나다	평균	36.533	3.598	-0.980	-0.674	-1.191	4.688	0.469
	표준편차	0.985	0.027	0.022	0.067	0.130	3.393	0.007
영국	평균	34.133	3.530	-1.361	-1.048	-1.331	5.914	0.538
	표준편차	1.245	0.037	0.095	0.138	0.060	4.050	0.011
미국	평균	37.423	3.622	-1.452	-1.352	-1.317	4.545	0.516
	표준편차	0.719	0.019	0.016	0.034	0.109	2.942	0.009

- 평균과 표준편차는 1980-1997년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값임.

또한,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이 가장 시장 지향적인 미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스위스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과 관련될 때,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수준이 모두 낮을 때보다, 두 조정 전략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낮을 때,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술통계에 기초한 탐색적 분석일 뿐이며, 보다 일반화된 분석은 통계검증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표 7>은 국가별 소득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좀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중 후반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한 국가는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로 분석되었다. 뉴질랜드는 소득불평등 정도가 1980년대 초반 32.4에서 1990년대 중후반 43.2로 약 10% 포인트 정도 증가되었으며, 스웨덴은 27.4에서 34.7로 약 7% 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에 스위스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48.7에서 39.5로 약 9% 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에서 스위스의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현상인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소득불평등 전체 평균은 47.105로 나타났으며, 1996년 이후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7> 소득 불평등 수준의 국가별 변화 경향

구분	1980-1982		1983-1985		1986-1988		1989-1991		1992-1994		1995-1997	
스웨덴	27.40	(0.41)	28.28	(0.14)	28.57	(0.14)	28.65	(0.16)	29.22	(0.43)	34.72	(2.02)
핀란드	30.29	(0.07)	30.95	(0.35)	31.43	(0.07)	31.93	(0.43)	32.91	(0.25)	34.35	(0.13)
덴마크	31.18	(0.15)	30.73	(0.46)	30.20	(0.17)	30.09	(0.18)	30.30	(0.52)	30.65	(0.58)
노르웨이	31.87	(0.26)	32.40	(0.26)	32.52	(0.25)	33.50	(0.41)	35.11	(1.01)	33.94	(0.21)
영국	31.92	(0.82)	33.53	(0.41)	34.23	(0.11)	34.56	(0.33)	35.39	(0.30)	35.16	(0.06)
호주	32.01	(0.40)	33.18	(0.32)	34.27	(0.30)	34.97	(0.72)	37.76	(1.32)	38.58	(0.21)
독일	32.04	(0.18)	32.30	(0.09)	32.30	(0.02)	32.11	(0.14)	32.16	(0.33)	33.68	(0.63)
네덜란드	32.12	(0.57)	34.16	(0.50)	34.04	(0.52)	34.22	(0.05)	34.57	(0.51)	36.04	(0.25)
뉴질랜드	32.40	(0.44)	32.76	(0.46)	35.14	(1.58)	36.58	(0.71)	39.05	(3.97)	43.20	(0.55)
캐나다	34.81	(1.01)	36.70	(0.12)	36.48	(0.34)	36.43	(0.45)	37.19	(0.30)	37.58	(0.04)
벨기에	36.22	(0.38)	36.74	(0.11)	36.98	(0.21)	36.88	(0.11)	37.38	(0.20)	37.98	(0.20)
아일랜드	36.42	(0.38)	38.03	(0.49)	39.00	(0.03)	38.40	(0.26)	39.18	(0.62)	41.37	(1.00)
미국	36.49	(0.29)	37.14	(0.04)	37.20	(0.13)	37.43	(0.31)	37.72	(0.16)	38.56	(0.79)
스위스	48.72	(1.13)	47.34	(1.56)	49.16	(4.09)	49.05	(3.68)	48.90	(1.58)	39.45	(5.61)
전체	33.65	(5.34)	34.54	(5.00)	34.66	(4.06)	35.39	(5.49)	35.70	(4.41)	36.91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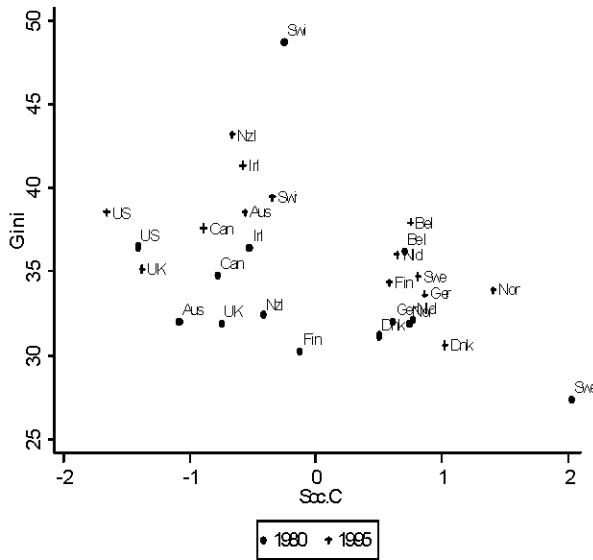
- 숫자는 3년 단위 평균값임. ( )는 표준편차

## 2) 조정수준과 소득 불평등

<그림 1>은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중 후반 국가별 분배조정 수준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급격하게 변화된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세 나라를 중심으로 분배조정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1980년대 초반 -0.46에서 1990년대 중후반 -0.58로 0.12점이 하락하였다. 뉴질랜드는 분배조정 점수가 낮아진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분배조정 점수가 낮아진 국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웨덴의 경우는 분배조정 점수가 1980년대 초반 1.86에서 1990년대 중 후반 1.10으로 0.76점정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위스의 경우는 분배조정 점수가 0.02점정도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소득불평등 정도가 가장 많이 악화된 두 나라에서 시장 지향적 분배조정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는 분배조정이 시장 조정전략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전의 매우 높았던 분배조정 수준이 어느 정도 평균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해석이 적당할 것이다.



\* 1980은 1980-1982년, 1990은 1995-1997년 3년간 평균 임 // \* Soc.C 분배조정, Gini: 지니계수

<그림 1> 분배조정과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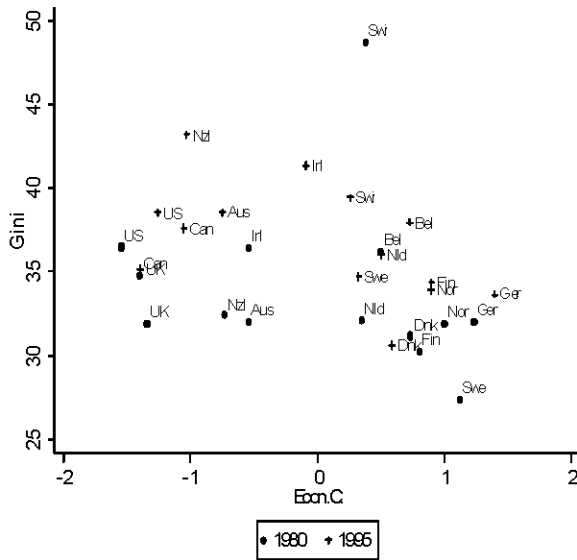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는 1980년대 초반에 비해서 1990년대 중 후반의 분배조정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중 후반의 분배조정 수준(-0.35)을 1990년대 초반의 분배조정 수준(-0.56)과 비교하면, 분배조정 수준이 0.21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분배조정은 여전히 평균 이하로 분류된다. 다만, 스위스의 분배조정은 전략적 조정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스위스의 1990년대 중 후반 소득불평등 정도의 호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는 생산조정과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 정도가 급격하게 변화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를 중심으로 생산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생산조정지수에서 뉴질랜드는 1980년대 초반 -0.73에서 1990년대 중후반 -1.03으로 0.30점이 하락하였다. 뉴질랜드는 생산조정 점수가 낮아진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생산조정 점수가 낮아진 국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웨덴의 경우는 생산조정 점수가 1980년대 초반 1.12에서 1990년대 중 후반 0.33

로 0.79점이 하락하여 하락 폭이 가장 큰 국가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스웨덴의 생산조정 정도는 14개 국가 중에서 중간 순위에 위치하였다. 스위스의 경우는 생산조정 점수가 0.1점 정도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분배조정과의 관계에서도 분석되었듯이, 소득불평등 정도가 가장 많이 악화된 두 나라에서 생산조정이 시장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는 분배조정 수준 뿐 아니라 생산조정 수준이 상당히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 소득불평등 수준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 후반에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에 이어 다섯 번째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은 나라로 분석되었다.



\* 1980은 1980-1982년, 1990은 1995-1997년 3년간 평균 임 // \*Econ.C: 생산조정, Gini: 지니계수

<그림 2> 생산조정과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경향

### 3) 결합시계열회귀분석 결과

#### (1) 결합시계열회귀분석 모델 설정

먼저 본 연구는 결합시계열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본 연구의 자료에 적합한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고정효과(Hausman test), 자기회귀(Durbin-Watson D test), 동시상관(Breusch-Pagan LM test), 이분산성 검증(Modified Wald test)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고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기회귀, 동시상관, 이분산성의 검증 통계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OLS의 기본가정을 위배하는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패널간 동시상관 및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ck and Katz가 제안한 PCSE 모델을 사



용하였다. 둘째, 자기회귀 현상으로 인한 문제는 후버와 스테픈스(2001a)가 제안한 대로 5년의 시차를 둔 로그 지니계수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해결하였다.<sup>14)</sup> 마지막으로 고정효과는 시간 더미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해결하였다. 시간 더미는 경기주기를 반영하기 위해 5년 단위 더미변수로 투입되었다.

(2)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및 해석

① 분석결과

<표 8>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및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은 두 변수간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제도적 상보성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일반인 통계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Franzese, 2001; Ernst, 2002; Hall and Gingerich, 2004 등).

<표 8> 분배·생산조정과 상호작용항 투입모델의 분석결과<sup>15)</sup>

종속변수: 로그 지니계수	1980년대(모델 1)		1990년대(모델 2)		전체기간(모델 3)	
	회귀계수	표준오차 <sup>1)</sup>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분배조정(A)	0.009 **	0.002	-0.0007	0.012	-0.005	0.006
생산조정(B)	-0.026 **	0.006	-0.035 **	0.009	-0.031 **	0.007
A×B	-0.023 **	0.004	-0.039 **	0.010	-0.032 **	0.006
인플레이션	-0.0004	0.002	-0.0009	0.002	-0.002	0.002
노인·아동부양비	0.127 **	0.030	0.218 *	0.101	0.181 **	0.058
시차종속변수 <sup>2)</sup>	0.901 **	0.088	0.690 **	0.106	0.769 **	0.072
상수항	0.328	.315	1.047 **	0.353	0.792 **	0.243
사례수	70		112		182	
설명력(R <sup>2</sup> )	.93		.79		.85	
Wald $\chi^2$	9046.84(df=6)		1021.09(df=6)		1663.44(df=8)	
시차종속변수 <sup>2)</sup>	포함		포함		포함	
고정효과	시간더미		없음		시간더미	

- 1) 표준오차는 패널 간 동시상관과 이분산성이 고려된 표준오차임(Panel Corrected Standare Errors)
- 2) 5년 시차 로그 지니계수(Lagged Dependent Variable).
- 시간 더미 변수는 공간상의 이유로 분석결과에 제시하지 않았음.
- \* p<.05 \*\* p<.01

14) 그러나, 시차 종속변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상당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주장들도 있다(Achen, 2000; Plümper 등,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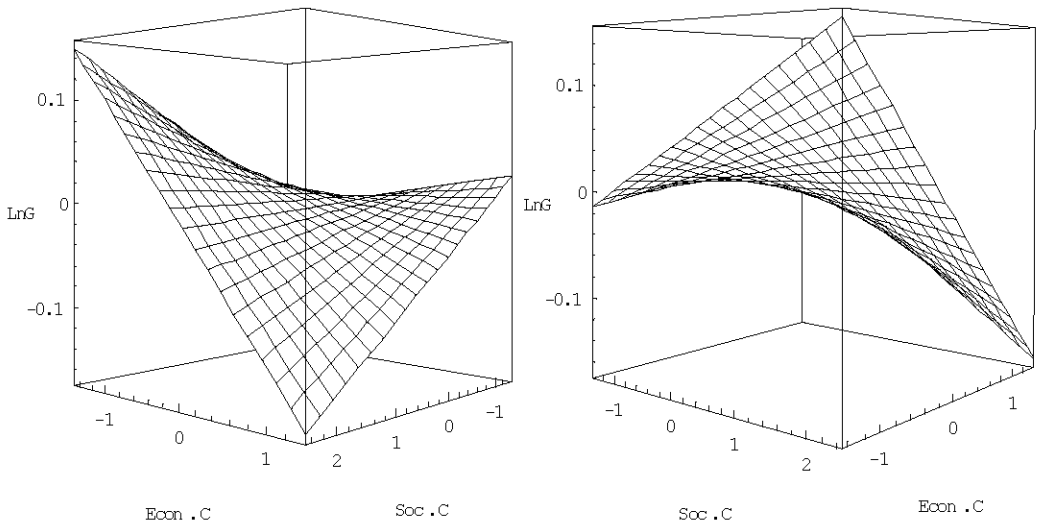
15) 종속변수인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와 가장 낮은 나라인 스웨덴과 스위스를 제외한 분석결과도 <표 8>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표 8>의 결과는 극단 값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며,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② 분석결과 해석 1

<표 8>의 모델 3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배조정, 생산조정 및 상호작용항이 소득불평등의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정한 값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점수의 변량범위 내에서 계산된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그림 3>에 따르면,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조합이 변화함에 따라 로그지니 추정값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수준이 가장 높은 조합이 가장 낮은 로그 지니계수 추정 값과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분배조정 및 생산조정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도적 상보성의 개념에서도 제시했듯이, 복지체제의 전략적 조정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 탈상품화와 관련되고, 생산체제의 전략적 조정은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 안정적 임금 보장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 상보성의 관점에서 보면 제도들의 효율적 구성과 관련되어 전략적 조정의 제도구성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수준이 가장 동질적이지 않은 조합을 가질 경우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수준이 모두 낮을 때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조합이 (-1, 1), (2, -1) 등의 조합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은 더 높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는 극단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조정전략의 조합은 제도적 상보성 가설에 따르면, 특정 정치경제체제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은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할 가능성이 적은 조합이다. 그 이유는 현실세계에서 조정전략의 조합은 상보적으로 제도가 구성되는 조정과정에서 조정전략이 혼재되기보다는 서로 비슷한 수준의 조정전략들이 결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 Soc.C: 분배조정, Econ.C 생산조정, LnG: 추정 로그 지니값

<그림 3> 조정 변수와 로그 지니값 추정치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조합들을 예로 들면서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은 각도를 달리해서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합된 사례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로그 지니 추정 값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조정에서 전략적 조정으로 변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은 역 U자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낮아서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이 중간 수준의 조정점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시장 지향적인 조정이 지배적인 조합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정전략의 조합은 미시적 차원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특정 정치경제체제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제도적 상보성에 따라 소득불평등 수준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도적 상보성 가설에 따르면, 분배조정 또는 생산조정 수준이 높은 것이 곧바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독립적 영향만을 고려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는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모두 소득 불평등 수준과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16)</sup>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분배조정 수준이 높다하더라도 낮은 생산조정 수준과 결합하게 되면,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조정 또는 생산조정을 독립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결과이다.

### ③ 분석결과 해석 2: 상호작용항의 해석

보다 구체적으로,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제도적 상보성이 어느 정도 소득 불평등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이것은 상호작용 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 상호작용 항이 포함된 모델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Franzese and Kam, 2003: 17). 왜냐하면,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지 않은 회귀분석에서는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때, 해당 변수의 계수 값 크기 및 부호로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하지만, 상호 작용 항이 포함된 경우 상호 작용 항에 포함된 특정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변수의 계수 값 크기 및 부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 작용 항이 포함된 모델은 상호작용 항의 계수 값과 부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모델의 효과(effect)를 해석해야 한다. 상호 작용 항이 포함된 모델의 효과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프란체스와 감(Franzese and Kam, 2003: 19)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변을 상호 작용하는 변수 각각으로 미분하여 모델의 효과를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 기간을 분석한 모델 3을 중심으로 프란체스와 감(2003: 19)의 제안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할 것이다.

상호작용 항이 포함된 모델에서 변수의 영향을 해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모델 3은 아래와 같았다.

16) 본 연구는 제도적 상보성 가설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ln Gini_{it} = \beta_1 Soc.C_{it} + \beta_2 Econ.C_{it} + \beta_3 Soc.C_{it} * Econ.C_{it} + \sum_{j=1}^j \beta_j Z_{jit} + \nu_t + \epsilon_{i,t} \text{ ----- } \textcircled{1}$$

① 식을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배조정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아래와 같다.

$$\frac{d \ln G_{it}}{d Soc.C_{it}} = \beta_1 + \beta_3 Econ.C_{it} \text{ --- } \textcircled{2}$$

② 식의 우항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분배조정의 단위당 변화( $d Soc.C_{it}$ )에 따른 로그 지니 값에서의 변화( $d \ln G_{it}$ )를 의미한다. 즉, 분배조정이 로그 지니 값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그 영향은 좌항( $\beta_1 + \beta_3 Econ.C_{it}$ )이다.<sup>17)</sup> 이때  $\beta_3$ 의 크기와 부호 및 생산조정 수준으로 분배조정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게 된다. 즉, 분배조정이 소득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조정 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8>의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이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양 변을 각각 분배조정 변수와 생산조정 변수로 미분해야 한다. 미분한 결과는 아래 식 ③, ④와 같다.

$$\frac{d \ln G_{it}}{d Soc.C} = -0.005 - 0.032 Econ.C_{it} \text{ --- } \textcircled{3} \quad \frac{d \ln G_{it}}{d Econ.C_{it}} = -0.031 - 0.032 Soc.C_{it} \text{ --- } \textcircled{4}$$

③ 식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배조정의 한 단위 변화가 소득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소득 불평등 증가율)은 기울기가 -0.032이고 절편이 -0.005인 생산조정 변수에 대한 함수이다. 즉, 분배조정이 소득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조정 수준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산조정 변수의 계수가 음수(-0.032)이기 때문에, 생산조정 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 증가율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④ 식에 따라, 생산조정 변수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생산조정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의 변화는 분배조정 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배조정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표 9>는 분배조정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득 불평등의 증가율이 생산조정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산조정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득 불평등의 증가율이 분배조정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③식, 후자는 ④식에 기초하여 계산되었고, 본 연구 자료의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량 범위 내에서 계산되었다.

<표 9>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분배조정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생산조정의 수준은 0.042에서 -0.050 범위에서 로그 소득 불평등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분배조정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는 높은 수준의 생산조정과 결합할수록 소득 불평등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산조정 수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석할 경우, 생산조정 한 단위가 증가할 때, 분배조정의 수준은 0.014에서 -0.326의 범위에서 로그 소득 불평등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17) 자세한 해석 방법은 프란체스와 감(2003: 20)을 참고하라.

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생산조정 수준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는 높은 분배조정 수준과 결합할수록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조정 수준에 따른 소득불평등(로그 지니) 증가율

	생산조정 점수									
	-1.47	-1	-0.5	0	0.5	1	1.41			
$\frac{dLnGini}{dSoc.C}$	0.042	0.027	0.011	-0.005	-0.021	-0.037	-0.050			
	분배조정 점수									
	-1.4	-1	-0.5	0	0.5	1	1.5	2.0	2.46	
$\frac{dLnGini}{dEcon.C}$	0.014	0.001	-0.015	-0.031	-0.047	-0.063	-0.079	-0.095	-0.326	

결국, 한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추기 위한 평등 전략을 추구하고자 할 때, 분배조정 수준과 생산조정 수준을 동시에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이 상호보완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도적 상보성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복지체제의 분배조정과 생산체제의 생산조정 사이에서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과 소득 불평등 수준으로 측정된 정치경제적 성과 사이의 인과구조를 검증하였다. 제도적 상보성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상보성 수준과 소득불평등은 정적(positive)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상보적 제도구성 수준이 높을수록 미시적 효율성을 충족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시장조정이 지배적이도록 제도가 구성된다면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시장조정의 전략적 목표가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책임, 국가보다는 시장의 역할에 대한 강조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영역 모두 시장조정 수준이 높아서 제도적 상보성 수준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도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분배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는 생산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불평등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만약에 전략적 조정으로의 정책변화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도적 상보성의 관점에서 보면 낮은 수준의 상

보적 제도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소득불평등 구조는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으며, 시장조정보다는 전략적 조정을 추구하는 정책 변화가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때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제도적 상보성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제도적 상보성 개념의 이론적 보편화에 기여하였다.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치경제적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부 연구들은 주로 분배조정 및 생산 조정 영역의 개별 제도들이 독립적으로 정치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이영수, 2003; Hall and Gingerich, 2004; Behrendt, 2000; Kangas and Palme, 1998; Hicks and Kenworthy, 1998; Korpi and Palme, 1998 등). 그 결과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성과는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는 소홀하였다. 둘째, 일부 연구들은 분배조정과 생산 조정 영역의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질적 사례연구나 집단간 평균비교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안상훈, 2005; 안재홍, 2004; Huber and Stephens, 2001a; Mares, 2001 등). 그 결과 소수의 국가들에 대해서만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고, 분석도 제도적 상보성에 대한 가설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증적 검증을 통해 제도적 상보성 가설을 확인함으로써 한 국가에서 뿐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복지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제도적 상보성 가설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한국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구성전략에 주는 함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노동시장 정책, 금융시장 제도, 노사관계 등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한 영역을 개혁하고자 할 때,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 영역 내의 개혁이라 할지라도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 전반의 변화와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 개혁 논쟁에서, 국민연금, 의료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개혁 과제들이 각각 독립적인 영역들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일반적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 영역의 개혁과 사회정책 영역의 개혁 사이의 관계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전략을 추구할 때,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나 경제 제도의 재구성이 독립적으로 고려된다면 소득불평등을 효과적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시장에 반하는 정치적 역동(politics against market)으로만 간주하고, 이것이 경제 제도 영역에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무관심하다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사회복지 제도가 경제 영역에서의 시장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불평등의 심화라는 역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펙(Peck, 2001: 4)은 복미식 노동연계복지정책(workfare)이 저임금 노동시장의 노동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Peck, 2001: 4).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 영역에서 특히, 저임금 일자리 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를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용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과 신뢰와 협의를 통한 노사관계를 확대하기보다는 시장의존적인 노사관계를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노동공급을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와 협회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조정 전략에 대한 동기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차적 분배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이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경제부문의 변화를 분리해서 논의하게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생산조정과 분배조정이 모두 전략적 조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제도보다는 제도적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분배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며, 북미식 노동연계복지정책 보다는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활성화(activation) 정책을 강조하는 정책 변화로 소득 분배 구조의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환준. 2005. "복지국가의 빈곤 추세와 변화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발표문(미간행).
- 박현수 역. 1991. 거대한 변환 : 우리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Karl Polanyi.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서울: 민음사.
- 백승호. 2005.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5년 비판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안상훈. 2002. "비교사회정책 연구방법론의 서설적 이해". 『상황과 복지』 13.
- 안상훈. 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연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205-230.
- 안재홍. 2004. "생산레짐과 복지국가 체제 상호연계의 정치: 이론적 논의와 스웨덴 노사관계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8(5): 391-454.
- 이영수. 2003. "노동시장 제도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1980-1999년 15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성근 역. 2003.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미야모토 타로. 2004. 福祉國家とい、戦略—スウェーデンモデルの政治経済學—. 서울: 논형.
- Achen, C. H. 2000. "Why Lagged Dependent Variables can Suppress the Explanatory Power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Political Methodology Working Paper*.
- Aoki, M. 2003.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between Organizational Archite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3-E-005*.
- Amable, B. 2001. "The Diversity of Social Systems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during the 1990s." <http://www.druid.dk/conferences/nw/paper1/petit.pdf>.

- Amable, B. 2002. "Is there an Institutional Base of the New Economy?"
- Amable, B., E. Ernst, and S. Palombalini. 2001. "How do financial markets effect industrial relations: A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pproach."
- Beck, N. 2001. "Time-Series-Cross-Section Data: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Few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 271-293.
- Beck, T., A. Demirgüç-Kunt, and R. Levine. 1999. "A New Database on Financial Development and Structure." World Bank.
- Beck, N., and J. N. Katz. 1995.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634-647.
- Behrendt, C. 2000. "Holes in the safety net? Social security and the alleviation of povert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aper prepared for the ISSA Year 2000 Research Conference in Helsinki* September 25-27.
- Deininger, K., and L. A. Squire. 1996.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World Bank Economic Review* 10(3): 565-91.
- Ebbinghaus, B., and P. Manow. 2001. "Introduction: Studying Varieties of Welfare Capitalism." pp. 1-26. in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in Europe, Japan and the USA*, edited by B. Ebbinghaus, and P. Manow. New York: Routege.
- Ernst, E. C. 2002. "Finanal Systems, Industrial Relations, and Industry Specialization.- An Econometric Analysi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 Industrial Economics*. NewYork: Oxford Univ. Press.
- Estevez-Abe, M., T. Iversen, and D. Soskice. 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the Welfare State." pp. 145-183 in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edited by P. A. Hall, and D. Soskice. Oxford Univesity Press.
- Federico, P. 2000. "Recent Developments In Quantitative Comparative Methodology: The Case Of 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 *Dss Papers SOC 3-02*. <http://fausto.eco.unibs.it/~segdss/paper/pode202.pdf>.
- Franzese, R. J. 2001. "Institutional and Sectoral Interactions in Monetary Policy and Wage/Price-Bargaining." pp. 104-144. in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edited by P. A. Hall, and D. Soskice. Oxford Univesity Press.
- Franzese, R. J., and C. D. Kam. 2003. "Model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ve Hypotheses In Regression Analysis: A Brief Refresher and Some Practical Advice." [http://www-personal.umich.edu/~franzese/interactions\\_Michigan.030305.pdf](http://www-personal.umich.edu/~franzese/interactions_Michigan.030305.pdf).
- Galbraith, J. K., and H. Kum. 2004. "Estimating the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s:



- A Statistical Approach to the Creation of a Dense and Consistent Global Data Set." *UTIP Working paper* 22. LBJ School of Public Affair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Gauthier, A. H., and A. Bortnik. 2001. "Comparative Maternity, Parental, and Childcare Database, Version 2." University of Calgary.
- Gauthier, A. H. 2003. "Comparative Family Benefits Database, Version 2." University of Calgary.
- Goodwin, M. 2001. "Regulation as process: Regulation theory and comparative urban and regional research."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16: 71-87.
- Gustafsson, B., and M. Johansson. 1999. "In Search of Smoking Guns: What Makes Income Inequality Vary over Time in Different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4): 585-605.
- Hall, P. A., and D. W. Gingerich. 2004. "Varieties of Capitalism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the Macroeconomy: An Empirical Analysis." *MPIfG Discussion Paper* 04/5.
- Hall, P. A., and D. Soskice(ed.). 2001. *Varieties of Capitalism-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 Hicks, A. 1994. "The Social Democratic Corporatist Model of Economic Performance in the Short- and Medium-Run Perspective." pp. 169-217.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edited by T. Janoski, and A. Hick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cks, A., and L. Kenworthy. 1998. "Cooperation and Political Economic Performance in Affluent Democratic."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6): 1631-72.
- Hicks, A., and L. Kenworthy. 2002. "Varieties of Welfare Capitalism." *LIS working paper* 316.
- Hicks, A., and D. Swank. 1992. "Politics, Institutions, and Welfare Spending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1960-1982."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658-74.
- Hollingsworth, R. J., and R. Boyer. 1997. "Coordination of Economic Actors and Social Systems of Production." pp. 1-47. in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Capitalist Institutions*, edited by R. J. Hollingsworth, and R. Boy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ber, E., and J. D. Stephens. 2001a. *Development and Crisis of Welfare States.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IL: Chicago UP.
- Huber, E., and J. D. 2001b. "Welfare States and Production Regimes in the Era of Retrenchment." pp. 107-145. in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edited by P. Pier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essop, B. 2002.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Blackwell Publishing Ltd.
- Kangas, O., and J. Palme. 1998. "Does Social Policy Matter? Poverty Cycles in OECD Countries." *LIS Working Paper* 187.
- Kenworthy, L. 2001. "Wage-setting coordination scores Data Set."

- Korpi, W., and J. Palme.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661-687.
- Korpi, W. 1978. *The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Work, Unions and Politics in Swede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_\_\_\_\_.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_\_\_\_\_. 1989. "Power, Politics, and State Autonomy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itizenship: Social Rights during Sickness in Eighteen OECD Countries since 193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309-329.
- Korpi, W., and Palme, J. 2003. "New Politics and Class Politics in the Context of Austerity and Globalization: Welfare State Regress in 18 Countries, 1975-9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3): 425-446.
-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 Shleifer, and R. W. Vishny. 1998.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6): 1113-55.
- Mahler, V. C. 2004. "Economic Globalization, Domestic Politics,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Developed Countries A Cross-National Stud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9): 1025-1053.
- Manow, P. 2001. "Business Coordinatin, Wage Bargaining and the Welfare State: Germany and Japan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pp. 27-51. in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in Europe, Japan and the USA*. edited by B. Ebbinghaus, and P. Manow. New York: Routege.
- Mares, I. 2001. "Strategic Bargaining and Social Policy Development: Unemployment Insurance in France and Germany." pp. 52-75. in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in Europe, Japan and the USA*. edited by B. Ebbinghaus, and P. Manow. New York: Routege.
- Nielsen, F. and A. S. Alderson. 1997. "The Kuznets Curve and the Great U-turn: Income Inequality in US Countries, 1970 to 199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1): 12-33.
- OECD. 1997.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 \_\_\_\_\_. 1999.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 \_\_\_\_\_. 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1980-2001*. Paris.
- OECD/HRDC. 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OECD:Human Resource Development Canada.
- Peck, J. 2001. *Workfare Stat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Plümper, T., P. Manow, and V. Troeger. 2005. "Pooled Data Analysis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A Note on Methodology and Theory."  
[http://www.mpi-fg-koeln.mpg.de/poloek/Dok/Beck\\_Ka7.pdf](http://www.mpi-fg-koeln.mpg.de/poloek/Dok/Beck_Ka7.pdf).
- Rueda, D., and J. Pontusson. 2000. "Wage Inequality And Varieties Of Capitalism." *World Politics* 52: 350-383.

- Scruggs, L. 2004. "Welfare State Entitlements Data Set: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f Eighteen Welfare States, Version 1.0."
- Soskice, D. 1999. "Divergent Production Regimes: Coordinated and Un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 the 1990s." pp. 101-134. in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edited by H. Kitschelt, P. Lange, G. Marks, and J. D. Stephen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phens, J. D. 1979.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UTIP. 2004. "University of Texas Inequality Project(UTIP)."  
<http://utip.gov.utexas.edu/data.htm>.
- Volscho, J. 2004. "Income Distribution in 14 OECD Nations, 1967-2000: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Working Paper* 386.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Coordination of the sphere of Distribution and Production: Focus on the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Baek, Seung-H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welfare regimes and production regimes on income inequality. Using comparative welfare data by various sources for 14 OECD nations from 1980 to 1997,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is there a institutional complementary in regulatory process betwee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Second, if it is correct, what kind of causal structure do we predict?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PC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is employed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variable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The evidence suggest that there are powerful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istributive coordination and production coordination and tha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y has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First,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becomes less positive(more negative) a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increases. Second,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becomes less positive(more negative) a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increases.

Key words: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coordination on the sphere of distribution, coordination on the sphere of production, income inequality.

[접수일 2005. 6. 2. 게재확정일 2005. 7. 27]